

WTO 뉴라운드 협상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1. 서론

요즘 신문과 잡지 등 지면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소개 일색이다. 그런데,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이다. 협상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쌀만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중국이 WTO 가입이 확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축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수입국인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못 궁금하다.

2. 뉴라운드 협상에 있어 서 양돈업계의 관심사항

WTO 뉴라운드 농산물협상

은 1999년 11월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2000년부터 전개될 다자간 협상의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을 계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에 장기적으로 관세마저 철폐한다는 취지에서 농산물 협상이 재개되는 만큼, 관세가 인하될 경우 그리고 기존의 예외조항이 없어질 경우 양돈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양돈산업은 이미 개방되어 있고, 축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 중에서 특히 수출관련 조항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98년부터 수출국에서 국내업체에 지원된 GSM-102자금과 관련 조항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축산물 관세 인하의 폭과 속도의 문제



허 덕 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

또한 어떻게 귀결될 지에 관심이 크다. 이 밖에 차기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 문제와 최소허용보조비율(De-Minimis) 관련 조항 등에도 큰 관심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앞의 세 가지 문제에 한정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가. 수출보조

현 WTO 조항 중에서도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포장비 지원, 유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장개척 관련 비용 등은 일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사정상 기존의 허용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수출보조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EU이다. 수출보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케언즈그룹의 국가들과 미국은 수

출보조는 감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 입장에서는 수출보조를 없애기 어려운 실정이라 어떻게 절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나라는 향후 돈육뿐만 아니라, 계육, 우육 등도 수출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차기 협상에서 반드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단, 수출국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타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관한 규제

수출국들이 자국내 생산감소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수급상 필요한 경우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억제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제가격은 상승하였고 수입국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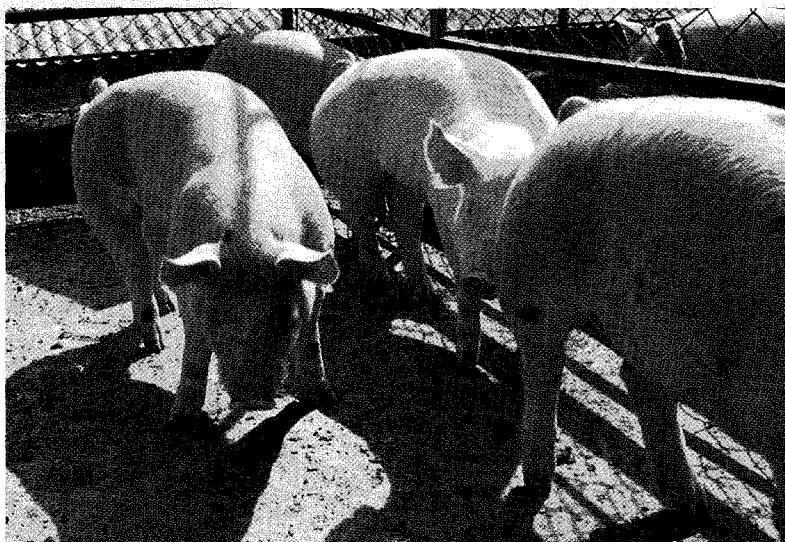
수입국들은 시장개방에 대하여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감축하는 등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수입국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규범을 마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규범 마련이 안되더라도 수출국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용해 봄직 하다.

다. 수출신용에 대한 공여 문제

수출신용에 대한 공여는 수출하는 국가가 수입자에게 장기 저리 용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즈그룹은 수출신용도 수출보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교역을 왜곡시키는 제도라고 평하면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EU가 케언즈그룹에 동조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출보조 철폐 얘기를 꺼낼 때마다 EU는 수출신용 규제로 반격을 하



고 있다.

우리 나라는 98년 이후 미국의 수출신용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의적인 수출통제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현재로서는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라. 관세의 인하 폭과 속도

차기협상의 준비과정에서 각국들이 내 놓은 의견들을 보면, 관세인하의 방법으로 1) UR협상 결과와 같이 6년간 36%를 감축하는 방법, 2) 모든 품목을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예: 50%) 만큼 감축하는 방법, 3) 높은 관세는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감축하는 차등감축 방법(Swiss formula), 4) 특정품목 그룹을 설정하여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입국들은 현행 관세수준을 유지하거나 관세를 삭감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의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2004년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관세 40%, 25%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과 우

리 나라의 농업의 특수성을 집중적으로 인식시켜 가능하면 2004년 수준인 40%와 25%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합의된 이상 축산업에 관한 한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 중에서도 양돈업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농산물 수입 관세를 22~17%라는 조건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가 향후 관세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내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고, 홍콩이 중국에 편입됨에 따라 돼지 사양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 위주 사양의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사료도 풍부하고 아직까지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사양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중국으로서는 축산물 생산비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이제까지는 가축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 전체를 수출금지 지역으로 규정하여 왔는데, 광활한 국토

를 가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질병이 발생한 일정 지역만을 수출금지 지역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후자 의견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 축산업 특히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5. 맺음말

이제 수입제한은 다 없어지고 관세만이 남아 있다. 관세마저 낮아지면 국내 축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력을 강화시켜 시장개방의 폭을 줄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나라들의 다양한 사정과 정보를 수집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차기협상중 농산물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은 당연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림부에서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축산국은 이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협상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 뒷받침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다. **양돈**